

데스크 시각

국민의당에도 봄은 오는가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국민의당 지지율이 다시 최저점을 찍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 지지율 4.9%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4주차와 10월 2주차에 기록했던 최저 지지율과 같은 수치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전주보다 3.1% 포인트 상승, 51.3%로 과반 지지를 회복했다.

국민의당 지지 기반인 호남의 상황도 심각하다. 15.7%의 지지율로 10% 중반대를 넘어섰지만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59%다. 양당의 지지율은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 및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1일 '골장 토론' 형식으로 열린 4시간 동안의 의원총회에서도 이견만 확인하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편치만은 않은 호남 민심

이 같은 어두운 전망에 호남 민심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 청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 총선, 호남의 녹색 돌풍은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올려놓은 것은 물론 16년 만에 다당제 구도를 창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는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체제에 대한 반감과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변방으로 밀린 호남 정치에 대한 갈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촛불 민심에 담긴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선전에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몰락에 따른 보수 진영의 대안 부재로 지난 대선

에서 안철수 후보가 반쪽 선전하기도 했지만 촛불 민심의 지지를 담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호남 민심은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대세론 속에서도 안 후보에 30%에 가까운 지지를 보였다. 최소한 국민의당의 정치적 생존 여건은 마련해 준 셈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호남 구에는 경쟁 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피부로 체감케 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권위,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보수와 진보의 양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중도 노선인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하지만 대선 패배 책임을 뒤로하고 당권을 장악한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를 대대로 바른정당의 연대 및 통합을 통한 외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소통과 호남 민심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외연 확대는 오히려 갈등을 촉발, 당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실제로 연대 및 통합의 대상인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이미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호남 지역주의 탈피, 햇볕정책 수정, 중도보수 통합 등의 발언으로 양 당의 심리저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외연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전술 부재로 국민의당의 위기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호남 민심의 요구는 그리 어렵지 않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 청산에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나서고 아담이자 캐스팅 보트를 원 제3당으로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생존 조건이다. 생존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외연 확대도 있다.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동의와 당내 결집 없는 외연 확대는 말 그대로 사사누각이다.

모든 걸 던져야 활로 보인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역설의 비유를 썼다. 5%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정치적 황무지일지 모른다.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4월에 승리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방법은 진정성과 헌신에 있다. 모든 것을 던져야 활로가 나온다. 집단 지성을 통해 진중하게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승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다당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제3의 길을 열어가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당이 4월의 봄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고

광주시립미술관의 '문화도시 광주 프로젝트'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이 없었다.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똑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도시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때여서 이런 의구심이 들만도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문화가 도시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도시는 우리와 후손들의 정신적 경제적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광주 시민들이고, 행정적으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던 광주의 고유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역사 중 하나에 광주시립미술관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를 대표하

는 광주의 자생적 문화기관으로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외 미술관과의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는 21세기 들어 광주가 자랑할 수 있는 저지만 큰 문화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해외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광주의 미술 문화를 홍보하며, 아시아의 미술 문화를 광주에 소개하는 이른바 '문화도시 광주 프로젝트'를 15년째 시행 중이다. 국내 어느 미술관도 못한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쿤스미술관(2003), 중국 광저우의 광저우박물관(2005), 대만 타이페이 관두미술관(2006), 대만 타이중 국립대만미술관(2009), 중국 북경의 금일미술관(2012), 중국 허난성의 허난성미술관(2012), 독일 뮌헨의 화이트갤러리(2013), 일본 요코하마의 백아트1929(2014), 중국 북경 798 예술촌의 포스갤러리(2015), 중국 광저우의 대학성미술관(2016), 대만 타이페이시립미술관(2017) 등에서 매년 전시를 개최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이들 미술관들과의 해외 전시 및 교류 전시를 통해 광주를 해외에 소개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를 광주에 소개하는 일을 목록히 15년째 지속하여 온 것이다. 전시 방식은 광주시립미술관이 해외

미술관과 협약을 맺고, 1차로 광주 작가들의 해외 전시를 개최하고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해외 미술관의 답방 전시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형식이다. 이는 한국의 어느 미술관도 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매년 광주시립미술관의 해외 자매 미술관이 하나씩 추가됨으로써 이미 벌써 타 시도 미술관 및 미술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광주시립미술관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 나아가 수십 년 후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은 한국의 어느 국립 미술관도 기본 적이 없던 동남아를 '문화도시광주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택하였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인 일본보다 미술관 건립이 늦었듯이, 신중 경제국인 동남아도 아직은 미술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 중 태국을 우선 선택하였는데 태국은 광주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청년기획자 조승기씨가 어느 기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비로 태국에 건너가 태국분야의 미술 교류를 시작한 곳이 태국이다. 그 결과 광주의 명문대인 실팍견 대학 등은 매년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소속 대학생 3명을 1개월간 광주의

대안공간 미태우그로에 파견해 광주의 문화를 배우게 한다. 이런 아름다운 인연으로 올해 태국을 선택한 것이다. 광주의 청년 작가와 청년 기획자를 지원해야 할 포괄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에 먼저 다가와 준 태국의 실팍견대학과 아타리갤러리 2곳에서 지난 11월 8일 현지 전시를 통해 자매기관의 연을 시작하였다.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선발한 광주 작가들은 모두 30대로 구성된 장래가 기대되는 신진 작가들로서 한국 청년들, 구체적으로는 광주 청년 작가들의 마음의 이미지들을 평면 작품을 통해 태국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태국의 작가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공동 전시를 개최하게 된다. 우리 세대는 '아시아 문화도시 광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번듯한 아시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 전해야 할 의무를 맡고 있다. 그 역할을 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갈 때 가치가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15년째 지속하고 있는 '문화도시 광주 프로젝트'는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을 거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우공이산'처럼, 아시아 전역에 매년 광주의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가 아시아 문화도시가 되는 데 작지만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기고

첫인상 망치는 '졸린 눈' 해결법



이상희 SM성형외과 원장

눈은 사람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 성형을 통해 외모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요즘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작고 졸린 듯한 눈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고있어?' '왜 인상을 써?' 라는 당혹스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졸린 눈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는 간단한 성형수술이나 시술 한 두 가지는 기본으로 받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 성형수술인데, 특히 작고 졸려보이는

눈은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다. 눈이 작고 졸려 보이는 증상은 경우 안검하수를 의심해야 한다. 안검하수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눈을 뜨는 근육이 약해 눈꺼풀을 잘 뜰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위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한 경우는 선천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외상이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꺼풀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경우 등은 후천적인 원인에 속한다. 또한 써클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는 경우에도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눈을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는 습관 탓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물론 졸려 보이게까지 해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교정술은 눈꺼풀 안쪽의 근육을 절개하고 늘여진 피부와 근육, 지방을 적당히 제거한 후 상안검근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한다. 안검하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꺼풀 수술만 할 경우 수술 후 쌍꺼풀 라인이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거나 짝짝이 눈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눈이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고 매력적인 눈매로 바꾸고 싶어 쌍꺼풀 수술을 상담하는데 작고 졸려보이는 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눈성형 방법은 다양하다. 눈이 작은 경우는 눈 자체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안검하수처럼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이로 인해 눈동자가 일부 가려져 작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안검하수로 인한 작은 눈은 답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심하면 시력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가급적 미루지 않고 빨리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눈매교정술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비절개 눈매교정은 과거 눈꺼풀에 절개선을 내던 방법과 달리 최근에는 눈 안쪽 결막을 통해 미세한 구멍을 낸 다음, 눈꺼풀 올림근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절로 흉터가 보이지 않아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며, 안검하수 증상이 미미하거나 눈두덩 지방이 적을 때, 눈꺼풀 처짐이 약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절개법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수술 후에도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다.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5~7일 정도이며, 늦어도 한 달이면 수술부위가 거의 회복된다. 눈매교정술과 쌍꺼풀수술은 따로따로 시술을 했을 때보다 동시에 시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전 눈매교정수술은 양쪽 눈 간의 또는 힘의 차이를 파악한 뒤,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꺼풀의 두께, 지방 및 근육량, 특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제 각기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타인의 눈 성형 후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도 같은 성형이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작용은 재수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차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이 지닌 눈의 특징과 원하는 눈매를 정확히 파악해 숙련된 전문의에게 진단 받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눈이 작다고 생각되더라도 성형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社說

수능 혼선 없도록 지진 매뉴얼 명확히 해야

오는 2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시험 도중 진동을 느낄 경우 대처법, 수험생 대피 인솔 책임자와 시험 중단 최종 결정자 등을 담은 수능 지진 매뉴얼이다. 하지만 수능이 코앞인 상황에서 발표한 정부의 종합 대책치고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능 지진 행동 요령에 따르면 지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대응이 나뉜다. 진동이 경미하게 느껴지면(가 단계)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른다. 진동은 있지만 안전은 위협받지 않는 수준(나 단계)이면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진동이 멈추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다 단계)이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수능 상황 통제는 시험감독관인 교사와 고사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사·교장이 위험 여부를 판단하거나 시험 중단 및 대피 지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전을 위한 대피 결정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잠시라도 시험이 중단될 경우 부정행위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지,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이 무효가 되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등 수능의 공정성·평형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없다. 게다가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도 미리 공표해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수능이 끝날 때까지 매뉴얼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 보완해야 할 것이다.

광주 비엔날레 국비 지원 줄어든다면 안 된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 축제로 발돋움한 광주비엔날레가 정부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제 행사 일몰제'에 발목이 잡혀 위상이 크게 추락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란 주제로 제12회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 11명의 큐레이터들을 확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예산 확보부터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7회 이상 지원받은 행사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제 행사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11차례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1047억 원의 예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매회 87억~117억 원의 예산 중 20%~4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최근 두 차례 행사 때는 각각 31억 원이 지원됐다. 내년엔 열리는 12회 행사 예산은 93억 원으로, 재단은 기획재정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국비를 18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줄면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문화 행사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인 데 비해 광주비엔날레는 이미 40%에 달해 한계(Imagined Borders)이란 주제로 제12회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 11명의 큐레이터들을 확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예산 확보부터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7회 이상 지원받은 행사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제 행사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11차례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1047억 원의 예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매회 87억~117억 원의 예산 중 20%~4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최근 두 차례 행사 때는 각각 31억 원이 지원됐다. 내년엔 열리는 12회

無 等 鼓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말은 민선 6기 유창한 광주 시장이 언급하면서 일화됐다. 윤 시장은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광주 발전을 이끈다는 생각에,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내놓았다. 조이롱 전기차 회사의 투자 유치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중국문화주간 행사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하지만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광주의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이 성과를 내는 데는

중시하는 중국에 광주를 알리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사드 갈등으로 사실상 중국과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광주와 중국 간 민간교류 창구 역할을 했다. 광주 지역 기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내놓았다. 조이롱 전기차 회사의 투자 유치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중국문화주간 행사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하지만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광주의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이 성과를 내는 데는

차이나 프렌들리

순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의 노력과 지원을 빼놓을 수 없

지역 내 중국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처음 일이었다. 21일 광주시의 차이나센터 개소에도 그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그는 각종 전문 도서와 자료 등 콘텐츠를 제공했고 개소식에 중국 대표로 자신이 나서는 대신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공을 돌리는 경양을 보였다. 순시엔위 총영사는 분명 광주의 자산이다. 그를 아는 광주 사람들은 지광파(知光派) 총영사가 나중에 주한 중국대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행복한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면 광주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2-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